

일본정부의 샤프 재건계획

- 경제산업성이 관장하는 관민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위기에 처해있는 샤프의 경영권을 쥐고, 도시바의 백색가전사업과 통합을 포함한 업계재편을 주도
-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관여하는 형태로 일본 액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라이벌인 한국에 대항하려는 것으로서 앞으로 샤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주목됨

□ 국가 주도에 의한 샤프 재건계획

- 2015년 초에 경영위기가 재연된 샤프에 대한 재건협회가 최종국면을 맞고 있음
 -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액정사업을 분리해내고, 관민펀드인 산업혁신기구로부터 출자를 받는다는 것이 골자
 - 산업혁신기구는 기업구조조정 및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민관 펀드회사이나,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해 기금의 95%가량을 정부가 출연해 만든 경제산업성 산하로,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임
 - 산업혁신기구는 샤프 주식의 과반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현되게 되면, 국가 주도의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임
- 출자액은 2,000억엔 규모가 예상되는데, 미즈호은행 등 주거래 은행에 2,500억엔의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지원을 재요청
 - 최근 샤프는 산업혁신기구로부터의 제안을 둘러싸고, 미즈호은행 및 미쯔비시도쿄 UFJ은행의 주력은행과 최종협의를 개시

□ 샤프의 재건 방안

- 재건방안은 우선, 액정사업을 분리하는 것임
 - 샤프의 액정사업은 2016년 3월기에 300억엔의 영업 손실을 계상할 것으로 보여 재건이 시급한 과제임

- 샤프의 경영진은 동 사업을 본체로부터 분리, 새로운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판단
- 산업혁신기구는 액정 신회사 주식의 90%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
- 금융계 투자펀드인 저팬·인더스트리얼·솔루션(JIS)이 가진 샤프의 우선주 250억엔을 액정 신회사의 보통주로 전환
- 산업혁신기구가 동 보통주를 취득하여 90%를 출자, 나머지 10%를 샤프가 내는 방향으로 검토
- 장래에는 산업혁신기구가 필두주주인 중소형 패널제조업체 JDI(저팬디스플레이)와의 통합을 검토
- 나아가 산업혁신기구는 액정사업을 분리한 후, 샤프 본체의 제 3자 할당증자 인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며, 액정 이외의 사업에 출자할 가능성도 있음
- 산업혁신기구는 도시마로부터 분사한 백색가전사업에 전액 출자, 샤프 본체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
- 양사의 백색가전사업을 통합하여 수익력을 높일 계획
- 백색가전 등의 사업도 타사와의 재편 등에 의해, 일본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

□ 궁극적으로는 국가주도에 의한 전기산업 재편

- 결국 산업혁신기구를 관장하는 경제산업성도 포함하여 국가 주도로 전기전자산업의 재편이 촉진될 전망
- 경제산업성이 관장하는 관민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경영권을 장악, 도시바의 백색가전사업과 통합을 포함한 업계재편을 주도하여 근본적인 체질강화를 꾀할 생각

□ 샤프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

- 샤프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에는 2개 주력은행으로부터의 차입액 중 1,500억엔을 액정 신회사로 옮겨 우선주로 전환할 예정

- 이것이 바로 채무의 주식화로서 금융지원방식의 하나임
- 샤프는 2015년 6월, 2개 주력은행으로부터 2,000억엔을 지원받았음
- 이에 더하여 샤프 본체에 남게 되는 채무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요청하여, 취약한 재무체질을 개선
- 그러나 2개 주력은행에는 산업혁신기구의 안을 용인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, 일부에서는 작년에 이은 대규모 금융지원에 대한 신중론도 있음

□ 외국기업들의 샤프 매수안

- 샤프의 재건을 둘러싸고는 홍하이정밀공업 등 외국기업도 움직이고 있음
-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이 액정을 포함한 샤프를 5,000억엔에 매수하는 안을 제시
 - 매수협의를 추진하기 위해, 이달 중에 새로운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음
- 미국계 투자펀드도 본체와 사업 매수에 움직이고 있음
 - 미국계 투자펀드인 콜백·크라비스·로버트(KKR)와 베인캐피털 등도 매수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

□ 산업혁신기구에 의한 재건안 최우선


- 샤프 경영진들 사이에서는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액정사업을 본체로부터 분리하여, 백색가전과 복사기 등 여타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자력으로 재건하자는 의견도 있음
- 그러나 산업혁신기구로부터 2,000억엔 규모로 출자를 받게 되면, 취약한 재무체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함
- 결국, 샤프로서는 고용 유지 등을 상정하는 경우, 산업혁신기구의 본체 출자 등의 재건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

□ 샤프의 과제

- 액정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실패로 경영위기에 빠진 샤프는 생존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초미의 과제

- 무엇보다도 최대 현안인 재무체질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면, 백색가전과 복사기 등 수익이 비교적 안정된 사업이나 로봇, 의료 등 성장분야로 예상되는 사업에도 투자하기가 쉬워짐
- 나아가 샤프가 강점이 있는 고성능 센서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투입 등도 용이해질 전망

□ 시사점

- 산업혁신기구와 감독관청인 경제산업성은 샤프의 액정사업은 여전히 높은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는 하나, 단독으로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음
- 따라서 지원 후에는 JDI와의 통합을 검토, 인력과 기술의 결집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가 관여하는 형태로 일본 액정사업의 경쟁력을 높여 라이벌인 한국에 대항하려는 것
- 샤프와 JDI가 관여하는 중소형액정 패널 분야에서는 한국과 대만,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하여 수익력이 어려워지고 있음
- 이에 차세대기술로 기대되는 유기EL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여 경쟁력 회복을 서두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됨
- 산업혁신기구는 2015년 가을경부터 아예 샤프 본체에 출자하여 액정을 포함한 전 사업의 재건에 관여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
- 그러나 단순히 통째로 지원하는 것은 구제의 성격이 강하고 성장분야의 기술에 출자한다고 하는 혁신기구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음
- 지원방안을 놓고 문제점이 적지 않은 만큼, 앞으로 샤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주목됨 

<참고자료>

- 닛케이신문(2015.12.9./31, 2016.1.11)